

# 三女神 도래신화와 축제 가능성

-신화와 민속을 결합한 競漕行事의 再構-

허 남 춘\*

〈차 례〉

- I. 서 론
- II. 악마희와 여신의 내방
- III. 삼성신화와 서사무가에서의 여신의 도래
- IV. 가야 허 왕후와 탐라 삼여신의 도래 의미
- V. 경조행사의 복원방안
- VI. 결 론

## I. 서 론

놀이문화의 부재와 복원 필요성

경조행사(競漕行事) 복원 가능성 타진

탐라국 건국신화와 동국세시기의 민속을 재해석하여 놀이를 재구함

문화를 노래문화·이야기문화·놀이문화으로 나눌 때, 우리나라는 놀이문화(극문학)이 빈약한 특징을 갖는다. 문학 내에서는 탈춤과 꼭두각시놀음이 전부다. 하지만 놀이문화는 풍성했다. 놀이와 함께 불리는 민요(유희요)도 풍부한데, 세시풍속에서 불리는 세시유희요에는 그네뛰기 노래·널뛰기 노래·줄다리기 노래·고싸움 노래·용호놀이 노래·가마싸움 노래·쇠머리대기 노래 등이 있다. 현재 놀이와 함께 불리는 노래는 남아 있지만, 놀이는 거의 사라졌다. 물론 세시풍속에서 불리던 민요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옛 놀이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고 옛 노래가 남아 있는 지금, 이것들을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 놀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전통놀이 복원은 시급한 과제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놀이문화를 키웠던 농촌공동체는 이미 사라졌고, 공동체를 지탱하던 정신적 구심점인 의례도 사라져버렸는데 무엇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탈을 받으면서 타의에 의해 공동체 놀이문화를 잃게 되었고, 해방 후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의에 의해 공동체 놀이문화를 상실했다. 그러나 근대화 100년을 겪으면서도 제주에는 아직 지역 공동체문화가 남아 있고, 일부 놀이도 희미하게나마 전승되고 있다. 제주의 놀이문화를 일부분 복원해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놀이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東國歲時記』에는 제주에 약마희(躍馬戲)라는 놀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놀이가 지금 제주의 일부지역에 전승되는 영등굿의 '배방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놀이는 중국과 동남아·일본 등지에서 거행되는 競漕行事와 유사한 것이다. 마을 축제에서 청년들이 여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승부를 겨루는 이 경조행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다. 이 놀이는 축제에 대단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지역 주민의 단합을 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제주에 남겨진 이 놀이를 잘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통적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여야 가능하다.

이 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마을굿(洞祭)에서 비롯되었다. 1년에 한 번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주재하는 신을 맞이들이고,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보내는 의례에서,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배를 몰고 경주를 벌이는 놀이가 있었다고 전해 온다. 이 의례는 풍요를 주재하는 여신 즉 삼성신화 속의 3여신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화와 의례를 재해석함으로써 競漕行事를 복원할 수 있고, 이 놀이를 통해 지역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민족의 놀이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 연구는 제주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를 재해석하고, 『동국세시기』 등의 문헌에 기록된 민속을 재구성함으로써, 한국의 놀이문화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 II. 약마희와 여신의 내방

약마희가 '때물이' 민속이 아닐까

약마희가 지금 전승되는 '배방선' 놀이와 같은 성격이 아닐까

악마희는 탐라국 건국신화의 3여신의 도래와 연관되지 않을까  
이 놀이는 풍요 기원의 놀이가 아니었을까

신화 자료와 문헌의 기록을 재구하면서 민속놀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데는 몇 가지 난관이 있다. 신화적 사유가 후에 어떻게 민속으로 정착하였는가 하는 점이고, 지금 남겨진 놀이가 어떤 역사성을 갖고 앞 시대의 민속과 연관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그 해석을 시도한다.

2월 초하루 귀덕, 김녕 등지에서는 장대 12개를 세우고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매월에 사는 사람들은 말머리 모양의 떼배를 만들어 채색 비단으로 꾸미고 악마희를 해서 신을 즐겁게 한다. 보름이 되어 끝내니 이를 연등이라 한다. 이 달에는 승선을 금한다.<sup>1)</sup>

우선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세시기』에 기록된 ‘악마희(躍馬戲)가 지금 남겨진 영등곶의 ‘배방선’ 놀이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궁리해 본다. 악마희는 “떼 모양을 말머리처럼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악마희를 하며 신을 즐겁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하면 경조행사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악마희를 제주어로 재구하여 그 맥락을 찾아보고자 한다. ‘악(躍)’은 중세어로 ‘뛰’이고 현대 제주방언으로 ‘튀’이고, 현대 표준어로 ‘뛰’이다. ‘마(馬)’는 중세어나 현대 제주방언으로 ‘말’이고 표준어로 말이다. 악마는 ‘튀말, 테말’이고 곧 떼물·떼몰이가 된다. 그렇다면 악마희는 현대어로 떼몰이놀이가 된다.<sup>2)</sup>

예전에 북제주군 구좌읍 북촌리의 영등곶에 ‘떼의 競漕가 있었는데 이를 ‘배방송’이라 한다. 이 의례는 작은 짚 배에 제물을 실어 떼배에 올려 놓고, 출발 신호와 함께 일제히 바다로 나간다. 경조에서 가장 앞선 떼배의 주인이 영등신을 전송한 셈이 되고 그 해 풍어를 얻는다는 신앙을 지닌다. 경조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은 술과 안주를 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sup>3)</sup> 떼를 저어 경주를 하는 이 놀이가 바로 위의 떼몰이(악마희) 민속과 같은 것이라는 가정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더구나 악마

1) 又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 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燃燈 是月禁乘船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濟州牧 風俗)  
2) 현용준, 「악마희고」,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21-223쪽.  
3) 1979년 3월 25일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에서 현용준 교수가 조사하였는데, 제보자(박인주)는 조천면 북촌리 사람으로 이 마을 당의 ‘매인 심방’이며, 이 마을의 영등곶을 계속 맡아 해온 심방이다.(위의 책, 224쪽)

희가 신을 즐겁게 하는 내용이듯이, 배방송의 의례도 신을 잘 모셔 전송하고 신을 즐겁게 하여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그 둘의 연관성이 짐쳐진다. 배경주의 놀이를 벌인 후 술과 안주로 즐겁게 논다는 국면은 가락국 신화에 나오는 '희락사모지사(戲樂思慕之事)와 너무도 흡사하다.

매년 7월 29일에 이 지방 사람들과 이졸들이 승점에 올라 장막을 치고, 술과 음식으로 환호하며, 동 서로 우두머리를 보내고 건장한 인부들은 좌우로 나뉘어 망산도로부터 용맹하게 달려 육지에서 경주하고, 배 머리는 동실동실 서로 물 위에서 밀며, 북으로 고포를 향하여 다투어 달리니, 이것은 대개 예전에 유천간과 신귀간이 허 왕후의 도래를 바라보고 급히 임금에게 알리던 일을 재연한 것이다.<sup>4)</sup>

가락국신화를 보면 수로왕비인 허 왕후는 아유타국으로부터 배를 타고 김해지역으로 도래하였다고 하고, 후에 허 왕후의 도래를 경축하는 놀이를 벌였다고 한다. 등과 서 두 패의 우두머리를 보내어 건장한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어 말을 달리거나 배를 타고 경주를 하게 하였다. 지방민과 이졸들은 음주환호(飲酒歡呼)하며 즐겼다고 한다. 청동기 국가 시대의 제천행사에서 '음주가무(飲酒歌舞)'하였던 의례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제주에서 벌인 약마희는 애초 탐라건국신화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제주의 건국신화는 3신인이 땅에서 용출한 후 벽랑국에서 온 3여신과 혼인하고 탐라국을 건설하였다는 내용이다. 3여신의 도래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오곡종자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년 농사의 풍요를 기원할 필요가 있었고, 제주에서는 일찍부터 3여신의 도래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풍요를 비는 행사를 거행하였을 법하다. 이 여신의 도래를 경축하는 행사가 나중에 신을 보낸다거나 혹은 신을 맞이한다는 경조행사(약마희) 민속으로 정착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정을 해 본다. 물론 약마희의 경조행사는 현재 영등신을 배송하는 의례에서 거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3여신과 같은 풍요신격을 맞이하는 행사가 영등신을 배송하는 행사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3여신은 오곡종자를 가지고 왔으므로 풍요신의 의미를 띄는데, 약마희도 역시 풍요 기원의 성격을 갖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므로 <탐라국 건국신화의 3여신의 도래 - 약마희에서의 신을 즐겁게 하는 민속 - 영등굿 속의 배방선 놀이>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배 혹은 떼를 띄우는 놀이인 점과, 풍요 기원의 의미를 지닌 점에서 이런 유추가 가

4) 「三國遺事」, 駕洛國記.

능할 것 같다는 제안을 해 본다.

### Ⅲ. 삼성신화와 서사무가에서의 여신의 도래

삼여신이 표착한 곳은 어디인가  
삼여신은 어디에서 출자(出自)하였는가  
본풀이와 영동곳에서의 강남천자국

삼성신화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이다. 세종연간에 준비되어 단종 2년(1454년)에 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주지』인데 세종연간(1450년)에 고득종이 지은 序文(序文)과 고씨 세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의 것보다 후대에 지어졌다. 그 후 이원진의 『탐라지』와 같이, 제주에 목사로 오거나 유배 온 문인의 문집류 속에 한결같이 삼성신화가 기록되는데, 앞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등에도 실려 있고, 20세기 초 『탐라기년』, 『편례초』 등에도 조선시대의 기록을 다소 손질하고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고려사』와 각 문헌의 삼여신 도래 대목을 간략히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돌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망아지 그리고 오곡종자가 있었다. 이윽고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神子 3인이 탄강하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하며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셔 오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배필을 삼아 대업을 이루소서”라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었다. (『高麗史』, 志 卷 第十一, 地理二)

삼여신은 '동쪽 바닷가'를 통해 들어왔고 그들의 出自處는 '일본국'으로 되어 있다. 『영주지』 계열에서는 '동쪽 바닷가'(일부는 금당포, 조천)로 들어왔고, 출자처는 '벽랑국'으로 되어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도 『고려사』와 같다. 20세기 문헌에는 삼여신의 도래처가 온평리라고 한 것이 많이 나타난다.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목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왔음을 발견하게 되어

탐라문화 제27호

(세상에 전해오기를 삼올라가 나라를 열 때에 벽랑국 사자가 세 신녀를 받들고 '연혼포'에 배를 대었으니 지금의 정의현 '열운리'가 이곳이다)....(김석익, 『탐라기년』, 1918년)

연혼포, 일명 열운리라고도 한다. 현의 동쪽 20리쯤에 있으니 삼올라가 개국할 때에 일본 사자가 삼신녀를 모시고 와서 여기에 배를 대었기로 생긴 이름이다.(김두봉, 『탐라지』, 1933년)

세전에 삼올라 개국시에 벽랑국 사자가 삼신녀를 모시고 연혼포에 내박하였다. 운하니 연혼포는 성산면 열운리 즉 온평리라(淡水契, 『증보탐라지』, 1955년)

하루는 자주빛 진흙으로 봉해진 목함이 동쪽 바다로부터 떠밀려와서 '금당'인 지금의 '조천포' 바닷가에 이르렀는지라 이를 열었더니 석함이 있고.... 『편례초』, (연대 미상)

이처럼 기존의 문헌에는 주로 '동쪽 바닷가'로 표현되던 것이 근래에 와서 '온평리' 또는 온평리의 옛 지명인 '열운리'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문헌이 '금당(조천포)를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 설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20세기 지식인들이 제주도의 구비전승에 관심을 갖고 역사서술을 보완코자 하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오랜 전승기반을 지닌 마을 당신화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온평리의 당본풀이를 보면 그 연유를 가늠할 수 있다.

신디렛빌레 고장남밭 좌정촌 맹호부인 맹호안전. 산시본산국은 서월 정기땅의서 식성제(三兄弟)가 솟아나니, 계수남배(桂樹木船)를 타고 제주섬 구경오리(구경와) 조천(朝天里)으로 들어오난(들어오니), 큰 부인은 조천관(朝天館) 정준बाट 정중부인, 셋성님(仲兄)은 짐녕(金寧) 관세전부인, 작은부인은 맹호부인. .... 낳은 날은 생산 죽은 날은 물고(物故) 호적장적(戶籍帳籍) 차지하던 본향(本鄉) 한집. 열룬이(溫坪里), 신산이(新山里) 양두술(兩里) 차지한 본향한집<sup>5)</sup>

여성신이 육지에서 바다 건너 들어왔는데, 큰 부인 정중부인은 조천관으로, 셋 부인 관세전부인은 김녕으로, 작은 부인 맹호부인은 온평·신산리로 들어와 좌정하였다고 한다. 이 온평리의 당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이 김녕 큰당 본풀이에도 남아 있다.

강남천제국(江南天子國) 정조국 안까름(內洞)서 솟아나신 삼 형제가 제주 입도해야, 큰

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88-689쪽.

성님은 조천관암선도 정중부인이고, 중형님은 김녕 관세전부인 객세전부인, 하늘공저 소공저 …… 죽은 아시(작은 아우) 열룬이(溫坪里) 고장남뱃 좌정후신 맹호부인입니다<sup>6)</sup>

그러나 조천 금당포에도 이 삼여신의 표착전승이 있을 법한데, 그런 전설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표착전승이 삼성신화를 형성시켰을 것이라고 현용준 교수는 추정한다.<sup>7)</sup> 삼여신의 표착 중에서 오래 남아 있던 곳은 '동쪽 바닷가'인 온평리였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는 삼여신의 표착에 관한 많은 전설이 남아 있다.<sup>8)</sup> 『온평리지』에 의하면 삼여신이 온평리 황노알에 표착하게 되자 그들을 맞이 하러 온 고양부 삼신인과 만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못에서 혼인을 하니, 이로부터 그 못을 '혼인지'라 불렀다고 하는 전설이 전한다.

<열룬이>란 것이 옛날 탐라국 때부터 있었다 하여. 옛 어른들에게 들은 말인데, “어째서 <열룬이>라 했고, 언제부터 <온평리>라 했습니까?” 하고 물어 보면, <열룬이>는 <열혼이>가 맞다 합니다. “<열룬이>에서 혼인을 했다” 해서 <열혼이>라 하는 겁주. 그러니 탐라국이 없어져 설란, 제주도가 “섬 도(島) 자”를 쓸 때부터 아마 <온평리>란 이름이 나온 모양이라 마썸.

<황로알>온평리 바닷가에 있는 지명>에서 유물이 발견된 일이 있는데 제주도에 인가가 전혀 없는 때에, 高粱夫 三姓이 무슨 별자리를 보고 - 그제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르겠습니까만, -<화성개>라 해서, 아마 화상이 올라 와, 사람들이 굶어 가니까, 벌을 보고 알았더고라(알아내었는지는) 온평리 <황로알>로 화상(花箱)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서 사냥을 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상자를 깨어 보니까, 아기씨(처녀) 세 사람과 무슨 송아지 망아지여 오곡씨여, 농사짓는 도구여 담겨 있어설란, 임시로 우선 <혼인지>에 가서, 거기 굴이 있어났수다. 굴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sup>9)</sup>

여기서 '황노알'은 『삼국유사』의 박혁거세 탄생담에 나오는 '蘿井' 즉 '늪알'과 친연성을 보이고, 이는 '신성한 물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니, 온평리는 시조의 탄생과 깊은 연관을 맺음에 틀림없다. 아울러 온평리에는 '화성개'연혼포'환죽' 등 삼신인과 삼여신의 혼인과 연관된 지명이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볼 때 건국신화와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온평리는 당본풀이에 나타나듯이 애초에 '열룬이'였던 것 같

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35-636쪽.  
7)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99쪽.  
8) 양중해, 『삼성신화와 혼인지』, 『국문학보』 3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0.  
문무병,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 성산을 온평리의 경우』, 『백록어문』 7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90.  
9) 『溫坪里誌』, 경신인쇄사, 1991, 43-44쪽. 현여정, 남, 78세. 이하 생략한 부분은 삼신인이 나무 오르기와 활쏘기 등으로 재주를 겨루어 형제의 순서를 정했다는 내용이다.

은데, ‘뿔’라는 일관된 지명표기 의도에 따라 ‘열운리’로 변한 듯하고, 더 나아가 한문 표기인 ‘온평리’로 정착되어 간 듯하다. 일찍이 삼성신화와 송당본풀이의 연관성이 조동일 교수에 의해 논해진 바 있는데, 이상문본 ‘송당본풀이’에서 백주할망이 ‘열운이’에 표착했다는 것을 보아도 그 원초적 지명을 가늠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삼여신이 출자한 곳이 어디인가이다.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듯이 <고려사계> 삼성신화와 <영주지계> 삼성신화가 삼여신이 출자한 곳에 의거하여 크게 둘로 나뉘고, <고려사계>는 ‘일본국’으로, <영주지계>는 ‘벽랑국’으로 적고 있다. 이 삼성신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온평리와 김녕의 당본풀이에서는 삼여신이 ‘서울’ ‘명나라’ ‘강남 천자국’ 등에서 출자했다고 한다. 삼여신의 출자처를 서울 혹은 중국 혹은 천자국으로 설정한 것은 후대의 변이 일 것이다. 시조도래 건국신화의 기본 설정은, 문명권 중심부의 인물이 주변부로 도래해서 현지의 지배자 신분의 여성과 결혼하고 그곳의 통치자가 되어 문명을 전파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도래한 인물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어서, 왕이 되지 않고 왕후가 되었다고 했다. 여성신이 문명을 전한 문맥이다. 삼여신이 땅아지와 송아지, 그리고 오탁종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고대문명을 전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당본풀이에서 중국 혹은 천자국을 빙자한 것은 중세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대에 형성된 당본풀이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우선은 중세국가인 고려의 권위를 빌려 당신의 신성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중세국가의 중심축이라 할 중국의 권위를 빌려 신성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고대의 탐라국이 중세화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중세국가에 예속되면서 중심부와와의 친연성을 강조하고 그 권위를 가져다 당신의 권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서울 혹은 중국에서 출자했다고 변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구비전승은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문맥이 끊임없이 쇄신된다.

그 예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신라의 선도산 성모는 서술성모라고도 하고, 박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로서 곡모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대 건국주의 어머니 신격인 셈이다. 그리고 가야의 허 왕후는 수로의 배필이 되어 고대국가를 연 주인공이다. 그런데 신라의 선도산 성모는 중국제실의 딸이라고 하거나, 가야의 허 왕후가 불교를 들여왔다는 부언은 바로 중세문명의 도래를 의미한다.<sup>10)</sup> 고대국가의 건설과 관련된 신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의 권위를 빌어 신성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변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10) 조동일, 「시조도래건국의 중세 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화』, 지식산업사, 1999, 96-141쪽.



일본국이라 한 것은 삼여신이 동해 먼 바다의 '日出處'에서 왔다는 것의 구체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탐라건국의 주역인 삼신인과 격을 맞추기 위해 국가의 이름을 빌었던 때문일 것으로 본다. 온평리의 촌로들에게서 수집한 삼여신의 도래와 혼인지의 이야기는 '황노알'에 표류한 세 여인을 '금관국의 공주'라고 한 경우도 있다.<sup>11)</sup> 여기서 금관국이라 한 것도 역시 탐라국의 건국 주역인 삼신인과 격을 맞추기 위해 국가의 이름을 빌되, 좀더 현실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의 금관국 출자를 구비전승에 가져온 것일 듯하다. 실제로 해상 교류가 가능한 금관국에서 왔을 개연성도 있지만, 기록 자료에 전무한 것을 보면 후대의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애초의 출자처는 '벽랑국'에 가까울 것이고, 현용준 선생이 추정하였듯이 '바당(바다)의 의미<sup>12)</sup>라 하겠고, 벽랑국은 '바다 저쪽'의 상상의 공간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강남천자국'이란 지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삼성신화와 세부적인 일치를 보이는 당본풀이를 비교하여 탐라국 건국서사시의 원형을 재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조동일 교수의 견해에 주목해 볼 만하다. 그는 송당본풀이를 삼성서사시의 원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제시하고 있다.<sup>13)</sup>

첫째, 송당본풀이의 소로소천국이 땅에서 솟아나듯이 삼성신화의 삼신인도 땅에서 솟아남.

둘째, 송당본풀이가 '웃송당' '셋송당' '알송당'의 상·중·하당의 세 신당이 공존하듯이, 삼성신화에서는 고을라·양을라·부을라의 삼신인이 등장함.

셋째, 송당본풀이의 여신 백주또가 무쇠철갑에 실려 제주에 표착하고 있듯이 삼성신화의 삼여신도 목함과 석함에 담겨 제주에 표착하고 있음.

넷째, 송당본풀이의 남신이 사냥을 위주로 하고 여신(백주또)는 남신으로 하여금 농사를 새로이 시작하게 하듯이 삼성신화에서 남신들은 사냥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데 삼여신은 오히려 농사를 가져와 농사를 시작하게 만든 점.

다섯째, 송당본풀이의 남신(문곡성, 소로소천국의 아들)이 제주도 전체를 지배하는 신격이 되듯이 삼성신화의 삼신인이 탐라국을 건국하여 제주 전체를 지배하는 신격이 되는 점.

그런데 삼성신화의 삼여신은 앞에서 살폈듯이 일본국 혹은 벽랑국에서 왔다고 하

11) 문무병,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 성산읍 온평리의 경우」, 12쪽.

12)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193쪽.

13)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72-89쪽.

고 있는데 반해, 송당본풀이에서는 백주또 여신이 '강남천자국'에서 왔다고 한다. 그리고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남신 소로소천국이 제주 절도섬에서 솟아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났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문국성(또는 문곡성)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다가 무쇠철갑에 담겨 버려지지만 용왕국에 표착하고, 다시 식성이 과다하여 상자에 담긴 채 쫓겨나 강남천자국에 표착한다. 후에 강남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고 제주에 돌아와 한라산 '벽름목'에 좌정하게 된다. 우리는 송당본풀이에서 백주또와 문곡성이 '강남천자국'에서 출자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다. 앞에서 살폈다시피 온평리의 당본풀이에서 세 여신이 출자한 곳이 역시 '강남천자국'이다. 삼성신화와 연관된 당본풀이에서는 여신의 출자가 '강남천자국'으로 일치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영등굿에서도 신이 출자하는 곳을 '강남천자국'이라고 한다. 영등굿의 대상 신격과 당본풀이의 대상 신격은 물론 다르다. 영등굿은 바람과 연관되어 영등풍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송당본풀이와 온평리 본향당본풀이의 여신은 삼성신화의 참여신과 연관된 점이 파악되었고, 참여신은 오곡종자를 가져온 풍요신격의 의미를 지니며, 참여신의 도래일에 맞추어 풍요신격을 맞이하는 의례를 1년에 한 번 거행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2월 영등달에 거행되는 영등굿도 여신에 대한 의례로서 신명이 대개 영등할망이고, 1년에 한 번 내방하는 풍요신격을 맞이하는 행사로 제주도 전역에서 거행된다. 우리나라 전역에 영등굿이 있었고 제주도에도 있었다. 영등굿은 농경과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인데, 지금 제주도에 농경 의례로 남아 있는 것은 드물고 대개 바닷가에서 어업의 풍요를 비는 의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영등굿이 바다를 통한 여신의 도래라는 측면에서, 더욱 참여신의 도래와 비견된다. 제주의 당신 모두가 강남천자국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유독 삼성신화와 연관된 본풀이와 영등굿에서는 '강남천자국'에서 출자하였다고 하니 그 친연성을 주목할 만하다.

배는 지금까지 짚으로 50cm 정도의 것을 만들어 했는데, 이 날은 나무로 만들었다. 이 작은 배에 도제상에 올렸던 모든 제물을 조금씩 떠 싣고 백지와 돈 등을 실은 후, 배를 어선에 올려 모시고 바다 멀 리가 띄워 보내는 것이다. 이때 심방의 창은 이렇다. “강남천자국으로 배 놓아 가져 흡네다. …… 영등 이월 대보름날은 맹지와당(명주바다) 실부람 불어, 예-, 강남천자국으로 배 놓아 갑네다. 맹년 춘삼월에 제주 오읍소서”<sup>14)</sup>

14)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73쪽. 이 영등굿은 1968년 북제주군 조천면 북천리에서 거행된 것이다.

영등할망은 '강남천자국'에서 2월 초하루에 와서 2월 보름 경에 돌아간다고 한다. 다른 기록에서도 영등신이 '강남천자국'에서 왔다가 간다고 했다. “문순실 심방의 이야기로는 약 30년 전만 해도 배 하는 사람들이 영등배인 짚배를 만들어서 띄웠었다고 한다. …… 이것은 제주도 전체가 하는 것이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 영등달에 영등신이 강남천자국 등에서 오고 가니까 그때 배를 만들어 띄운다는 설명이다.”<sup>15)</sup>라고 했다. 옛 문헌에도 영등굿에 대한 기록이 자주 보이는데, 대개 김상현의 『남사록』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사록』의 영등굿을 소개한다.

풍속에 2월을 연등절이라 한다. …… 매년 정월 그믐 때 바람이 서쪽 바다에서 불어 오면 이를 다른 지방에서 신이 온 것이라 말한다. 우리들을 모아 무당은 들에서 제사를 지낸다. 밤에서 낮까지 계속되는데 촛가를 드나든다. 2월 상순에 이르면 또 돛대를 갖춘 배 모양을 만들어 포구에 띄우는데 이를 송신이라 말한다. 이때는 바람이 동북쪽에서 불어오는데, 다른 지방의 신이 갔다고 말한다. 2월 초하루부터 보름 후까지는 절대로 바다에 배를 내보내지 않는다.<sup>16)</sup>

제주에서는 이 연등절은 지금도 영등달이라 한다. 2장에서 제시한 바 있는 『동국여지승람』의 『燃燈』 기록처럼 2월초에서 보름까지 승선을 금하고 있다고 했다. 『남한박물』에서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들고 차귀당신에 대한 기록을 한 뒤에 이 연등절을 적고 있다. 떼배를 띄우는 ‘연등’과 여기의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연등절’은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을 합하면 지금의 제주 영등달 풍속에 가깝다. 그리고 ‘돛대를 갖춘 배 모양을 만들어 배송한다는 것은 지금의 영등굿에서 ‘떼배’를 만들어 배송을 하는 의례 절차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영등신을 ‘다른 지방의 신’(他方之神)이라 했다. 제주의 당본풀이나 영등굿에서 신의 출자를 ‘강남천자국’이라 한 것을, 조선 중엽의 지식인들은 ‘타방지신’이라고 적은 것이 분명하다. 영등신은 바람과 연관된 풍신(風神)의 성격을 갖는다. 바람을 타고 바다를 지나 도래하는 신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서 맞이하거나, 배를 타고 바다 먼 곳으로 배송하는 의례를 행한다. 제주 사람들은 신이 바다를 건너 저 멀리 강남에서 왔다는 생각을 하되, 중세적 인식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신의 권위를

15) 강소전, 「제주도 잠수굿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89-90쪽.

16) 俗以二月爲燃燈節 …… 每年正月晦時 有風自西海來 則謂之他方之神來矣 聚群巫作野祀 以夜繼晝 出入村家 至二月上旬 又造船形俱帆檣 汎之于浦口 謂之送神 是時風自東北來 則謂之他方之神去矣 自二月初吉至于望後 絕不放船 (金尚憲, 『南嶽錄』, 永嘉文化社, 1992, 253쪽)

높이기 위해 천자국이라고 분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세의 지식인들은 '고려국' 혹은 '조선국' 이외의 '국'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방지신'이라고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간전승에서는 '바다 저쪽'이라는 의미의 '벽랑국'이라 하다가, 구체적인 '일본국' 혹은 '금관국'이라 하기도 하고, 바다 저쪽 - 동·서·북방보다는 좀더 넓게 펼쳐진 남쪽을 택하였고, 중세 어느 시기에 중국의 권위를 덧붙인 '강남 천자국'을 출자처라고 여기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IV. 가야 허 왕후와 탐라 삼여신의 도래 의미

##### 새로운 문명의 전래

삼성신화에서 삼여신은 바다를 통해 제주의 동쪽 바닷가에 표착한다. 이와 같이 바다를 통한 도래의 모티프는 탈해신화와 가야신화에서도 살필 수 있다. 해상으로의 도래 즉 箱舟漂着신화는 동남아와 한국 남부에 분포하고 있다.<sup>17)</sup> 도래인은 철기문화·직조문화·농경문화(鍛冶術·緋染·織造·오곡종자)와 같은 선진한 문화와 기술을 토대<sup>18)</sup>로 하여 지배자 혹은 지배자의 배우자가 된다. 탈해는 토함산에 오른 뒤에 호공의 집에 숯과 솥들을 감추어 두었다가 위계로 호공의 집을 때었는데, 이 숯과 솥들은 바로 철을 다루는 야장의 도구이다. 그러니 탈해는 박혁거세보다 늦게 신라에 들어왔지만 철기문명을 바탕으로 제 4대 왕에 오르게 된다.

허 왕후의 도래신화는 삼성신화의 혼인과 같은 유형의 것이다. 허 왕후는 가야 땅에 도착하자 바로 山靈에게 비단바지를 바친다. 그리고 허 왕후는 錦繡綾羅·衣裳疋段·金銀珠玉 등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들은 삼성신화에서 3여신이 가져온 오곡종자 등과 같은 선진한 문화의 속성을 띤다. 허 왕후의 고향 아유타국은 3여신이 출자한 곳 벽랑국과 같은 신비한 신의 나라이고, 이곳은 불이라거나 오곡종자 같은 '인간생활과 국가건설에 소중한 물질'이 풍성한 神國이라는 觀想이 담겨 있다고 했다.<sup>19)</sup>

17)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제2집, 탐라문화연구소, 1983, 80쪽.

18) 윤철중, 「탈해신화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7, 88쪽.

19) 현용준, 「고대 한국민족의 해양타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456쪽.

분명히 허 왕후의 세력은 비단의 직조문화를 가지고 도래한 집단이다. 허 왕후가 망산도로 들어올 때 붉은 빛의 돛(緋帆)을 높이 걸고 꼭두서니 빛의 깃발(茜旗)을 달고 있는데, 이도 비단과 연관되는 신성상징일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모계신인 仙桃聖母는 일찍이 여러 天仙을 시켜 비단을 짜서 붉은 물을 들이고 朝衣를 만들어 지아비에게 주었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비로소 신성한 중함을 알게 되었다<sup>21)</sup>고 했다. 선도성모의 '織羅' 또한 직조문화를 가지고 도래한 집단의 의미를 지닌다.

문헌설화이긴 하지만 신화적 흔적을 지니고 있는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에서도 비단의 직조문화가 드러난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신라를 떠나자 일월이 빛을 잃었고, 세오녀가 짠 비단(細絹)으로 일월이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을 '日月之精'으로 여겼고, 하늘에 제사한(祭天) 곳을 영일현이라 했다고 한다. 일월에 제사하고 제천하는 제물은 비단이고, 이는 神物로 여겨졌다. 이 설화는 직조술의 渡日을 상징한다. 비단은 제천의 신물이고, 직조술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기반이다. 선도성모의 직조술도 바로 고대국가 건설의 중요한 문화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기문화·직조문화·농경문화는 고대문명과 연관된 것이고, 이것들은 고대국가 형성에 긴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철기와 비단과 오곡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가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구어 낸 이야기가 고대 건국신화의 주류를 이룬다. 제주의 삼성신화도 이런 반열에 든다고 하겠다.

제주 삼성신화에서는 3여신이 오곡종자와 송아지·망아지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제주의 서사무가 중 괴내깃당본풀이 또는 이의 발전적 형태인 송당본풀이는 삼성신화의 근원적 신화에 해당된다고 한다.<sup>22)</sup> 여기에서 소로소천국이 사냥을 하여 생업을 꾸려나갔는데, 자녀들이 많아지자 백주또가 농경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신에 의해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제주의 고·양·부 3신인은 사냥을 하면서 지내다가, 3여신과 혼인하여 농경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송당본풀이와 삼성신화는 함께 남성신의 수렵문화와 여성신의 농경문화를 보여 준다. 두 문화의 결합은 큰 힘을 발휘하게 하였고, 고대국가의 건설에 까지 미치게 된다. 특히 송당본풀이의 문곡성과 같은 주인공이 부모에게 버려진 후

20) 윤철중, 「사소신화의 성립에 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 7집, 반교어문학회, 1996, 12쪽. 그는 붉은 깃과 꼭두서니빛이 신성상징이라고 했고, 이 돛과 깃발도 비단으로 만들어진 직조문화의 산물이라고 했다.

21) 嘗使諸天仙織羅 緋染作朝衣 贈其夫 國人因此始知神驗(『三國遺事』, 仙桃聖母隨喜佛事條)

22)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89쪽.

강남천자국에 표착하여 난리를 평정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에 돌아온 내력은, 주인공의 해상능력을 보여주는 바이다. 그래서 조동일 교수는 '탐라국 건국서사시'는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안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밖으로 주권을 지키는 영웅이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지만 당당한 나라를 세운 위업을 나타냈다" 23)고 하였다. 그리고 탐라국의 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탐라국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백제·신라·일본·중국 등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왕래하면서 교역을 했다. 상대방에 비해 모자라지 않는 정치적 역량, 군사력, 항해능력 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24)

이런 발견과 해석은 과거 탐라사에 대한 한국사의 왜곡되고 편협한 서술태도를 비판하고본토 위주의 역사관을 불식시키는 대단한 견해다. '탐라국'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고대국가와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탐라사를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역사 쪽에서 못하는 일을 구비문학을 통해 문화 쪽에서 먼저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몇몇 논문들이 고대국가의 형성시기인 1세기 즈음 탐라도 '國'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며 서서히 고대국가 체제로 성장하였음을 입증한 바 있다. 1928년 산지향 축조공사시 발견된 유물은 한식(漢式) 동경(銅鏡) 2점, 동경 장식, 오수전(五銖錢) 4매, 화천(貨泉) 11매, 대천(大泉) 2매, 화포(貨布) 1매 등이었다. 오수전은 BC 118년부터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화폐이며 왕망 때 잠시 사용과 주조가 금지되었다가 후한 이후 다시 주조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화폐이다. 이청규 교수는 오수전이 왕망전과 함께 출토되기 때문에 그 연대가 기원후 1세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25) 그리고 이 오수전이 제주도 산지향, 전남 거문도, 마산 성산 패총, 황해도 운송리 등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들은 중국과 상당한 왕래와 교역이 있었다고 평가된다.26) 계속해서 전경수 교수는 제주도를 한반도 국가에 편입된 하위단위로 간주해 온 입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고대 제주도 역사기술을 한반도의 중심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상고 탐라를 동아시아 또는 동지나 해양문화권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진영일 교수는 중국 화폐가

23)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 19집, 제주학회, 2001, 104쪽.

24)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102쪽.

25)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1995, 194-195쪽.

26)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 제주도연구회, 1987, 33쪽.

발견된 지역에서의 교역은 반드시 중국 상인들만이 주체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탐라인들도 중한(中韓)을 다니며 교역하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한반도 다른 지역을 다니며 장사를 했고, 산지항은 국제 교역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리고 그 무역은 기증무역의 성격이었고, 화폐는 수장이 사회를 통제하는 수장사회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다.<sup>27)</sup>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탐라국이 일찍부터 고대국가 체제로 발전하여 그 정치적 역량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해양문화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 신화와 본풀이에 반영되어 있다. 강남천자국을 평정하고 군사를 이끌고 제주로 돌아오는 문곡성의 내력은 바로 동아시아 해양문화권의 해상능력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고, 삼여신이 농경과 목축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것 역시 고대문명의 전래와 탐라국의 형성과정을 상징하는 문맥이라 하겠다. 물론 농경과 같은 중요한 기술적 전환이 바로 탐라국과 같은 사회조직의 변화와 직결되지 않는다<sup>28)</sup>고 하겠지만, 철기와 비단과 오곡으로 대표되는 고대문명의 문화적 충격은 컸다고 하겠다.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갈등을 벌이다가 서서히 결합하여 생산력을 증대하고 국가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삼여신의 도래는 가야국의 허 왕후 도래와 비견되는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고, 새로운 문명의 수입과정을 보여 주는 문화적 교섭의 징후라 하겠다.

## V. 경조행사의 복원방안

### 제의와 놀이의 양면성 인식

#### 주변국가 놀이와의 비교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고, 우리의 민속에도 나름의 독자적인 형태로 거행되었던 競漕行事를 복원하려면 우선 근거 문헌을 명료히 살피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조행사와 같은 놀이문화는 두 편이 나누어 놀이를 벌이는 ‘양파제의’

27) 진영일, 「고대탐라의 교역과 國 형성고」, 『제주도사연구』 3, 제주도사연구회, 1994, 39쪽.

28) 진영일, 「고려기 참라의 屋主와 三神人 탐색」, 『탐라문화』 26, 탐라문화연구소, 2005, 45쪽. 그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기구의 변화가 선행되고 그 후에 기술, 생계, 그리고 기타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탐라국의 형성을 조동일, 이청규, 전경수 교수들보다 늦은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兩派祭儀) 성격을 드러내는데, 줄다리기·차전놀이·수레싸움·석전(石戰)의 민속이 이에 해당한다. 이 양파제의에 대해서는, 의례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는 기능주의적 해석, 어떤 대립하는 모순을 매개한다는 구조주의적 해석, 이런 오락이 없으면 사람들은 너무 지루할 것이라 보는, 민족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식적 해석, 성적(性的) 의례를 통해 풍요를 기원한다는 신화·제의적 해석 등으로 그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

신화·제의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양파제의에 접근해 보면, 배를 타고 경주하는 이경조행사는 풍요를 기원하는 사유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속놀이가 항상 '제의와 놀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음을 감안해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민속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놀이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축제 속에도 빈번하게 보이는 것이므로, 주변국가의 경조행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일단은 일본 오끼나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날 마을(河内) 사람들이 신사에 나와 제를 지낸 후, 음복을 하고 <후나고로오>를 시작한다. 배는 일반 어선으로, 새로 만든 것 두 척을 선정하여 뱃머리에 붉은 천과 흰 천으로 장식한다. 그래서 마을 청년 10명을 골라 한 배에 각각 5명씩 타게 하면 이 청년들은 노를 저어 약 200m 떨어진 <오노우라>로 나간다. 청년들은 온 힘을 들여 노를 저어 배를 몰아오는데, 먼저 이쪽 포구에 도착한 배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 행사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전하지 않으나, 어업선의 제일에 행하는 것으로 보아 풍어와 관계 깊은 것으로 본다고 古老들은 말했다.

豆酸 마을에서도 역시 <후나고로오>라고 해서 9월 15일과 9월 18일에 행했는데, …… 건장한 청년들을 골라 두 편으로 나누어 배 두 척에 각각 14-5명씩 태워 바다 멀리 보낸다. 청년들은 노를 저어 나가며 신사를 향해 멀리서 기원을 하고, 일정한 지점에 가면 뱃머리를 돌려 해안을 향해 동시에 노를 저어 경주한다. 이쪽 해안에는 일장기를 꽂아 놓고 마을사람들이 응원을 하는데, 청년들 중 먼저 노 저어 와서 일장기를 잡는 쪽이 승리한다. 끝이 나면 酒宴을 베풀어 즐기고 어업신에게 다시 참배를 한다.”<sup>29)</sup>

이 競漕 행사는 우선 건장한 청년이 두 편으로 나뉘어, 포구까지 배를 저어 온다. 그리고 음복을 하고 시작하거나 마친 후 酒宴을 벌인다. 먼저 들어온 편이 승리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누가 이기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대개는 한 마을을 동서 2조로 나누어 서쪽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 곳이 있고, 상·하 두 마을이

29)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26-227쪽.



競漕하는데 한 쪽을 남신, 한 쪽을 여신이라 하고, 여신 쪽 배가 승리해야 좋다는 곳도 있어 다양하다. 어느 것이나 풍요를 기반으로 두고 있음은 동일한 것이다.<sup>30)</sup> 위의 〈후나고로오〉 행사도 어업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요제의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일본 오끼나와의 경조행사는 제주의 '떼몰이' 혹은 '배방선'의 놀이와 매우 유사함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주변국가의 여러 민속을 고찰하여 1)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놀이 2) 풍요 기원의 내용 3) 술을 함께 마시고 노는 축제의 측면 4) 행사의 절차와 순서 등을 면밀히 비교하고 우리나라 놀이의 특성을 밝힌다면, 경조행사의 복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궁극적 목표는 제주 놀이문화를 복원하여 민족의 놀이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있고, 이를 위해 문헌 기록과 현전 놀이의 엄정한 고증을 시도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의례(여기는 늘 제의성과 오락성이 있다)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거락국 건국신화의 '희락사모지사'에 나오는 경조(競漕)의 본래적 의미와 이것이 후에 굴절되어 축제의 성격을 띠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탐라국 건국신화에서 3여신의 도래의 의미와 여신의 도래를 경축하는 행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비교해야 한다. 다음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세시기」에 기록된 문맥을 자세히 살피고 재해석하여 현전 영등굿 행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고찰하여야 한다.

둘째, 배를 타고 경주를 벌이는 행사가 주변 동아시아에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속과 주변 국가의 민속을 면밀히 비교하여, 이 놀이가 지니는 공통점과 상이점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오끼나와를 비롯해 경조행사가 전해지는 지역과, 용선을 타고 북을 두드리며 대단위의 축제를 벌이는 중국 해안지역을 답사하여 우리 민속과의 비교연구를 실행하고, 양국의 놀이문화가 지니는 특성과 파급효과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아시아 축제에서 거행되는 놀이의 절차와 순서를 비교 고찰하여 각 절차가 지니는 의미를 재구하고 우리 민속놀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과 차별화된 놀이문화의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연구함과 동시에, 이런 놀이문화가 국가적인(혹은 지역적인) 축제로 수용될 때의 기대효과에 대해 실제적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축제 예산과 지역주민의 호응도, 관광

30) 伊藤幹治, 「神話・儀禮の諸相からみた世界觀」, 『沖繩の民族學的研究』, 日本民族學會, 1973, 238쪽.

객의 수요와 소비성향, 지역경제로의 파급효과, 문화사업의 긍정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VI. 결 론

전통이란 당대의 사회상에 맞추어 부단히 변화되어야 그 활력을 갖는다. 녹슨 유물을 꺼안고 문화를 운위해서는 안 된다. 제주에 전래하는 수많은 놀이문화도 그 현상성과 신화성을 온전히 복원하여 계승될 때 진정한 제주도민의 축제가 되고 관광자원도 된다. 제주의 입춘굿놀이가 관덕정 앞에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덕수리의 풀무질 작업과 노래가 그 현장에서 그 지역민의 축제로 거행될 때 관광문화도 가능하다. 삼여신이 도래했다는 온평리의 황노알과, 삼신인이 삼여신과 혼인했다는 혼인지를 무대로 도래와 혼인의 유풍을 사모하는 놀이(제주의 '희락사모지사'라 하겠다)를 재구성할 때 제주의 축제문화가 살아날 수 있다.

본고는 삼성신화와 현전하는 영등굿을 비교해 보면서 그 축제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특히 영등굿 중에서 동북리에 전승되는 '떼배'의 경조행사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악마희'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신을 배송하는 이 놀이가 당초에는 신을 맞이하는 절차에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이웃 국가는 대개 신을 맞이하는 곳에서 경조행사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야의 허 왕후가 도래하는 유풍을 1년에 한 번씩 놀이로 거행하던 '희락사모지사'에서 착안하여, 삼여신이 도래하는 의례를 1년에 한 번씩 놀이로 거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본풀이와 구비전승에 의하면 삼여신이 도래한 곳이 성산을 온평리인데, 이곳에서 떼배의 경조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삼여신 도래 축제'를 거행할 수 있다.

물론 신화나 본풀이의 삼여신과 영등굿의 영등할망(風神)은 그 신격에서 크게 다르다. 그리고 신을 배송하는 의례와 신을 맞이하는 의례도 다르다. 하지만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영등굿의 옛 기록을 살핀다면, 신을 보내면서 배를 띄워 배송하듯이 신을 맞이하면서 배를 띄워 환영하는 경조행사도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바다 저쪽' '강남 천자국'에서 동쪽 바닷가로 오는 신을 맞이하고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둘의 사유가 같고, '악마희'의 경조놀이를 영등굿에서 거행하듯이 삼여신의 도래신화를 경조행사의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비전승되는 본풀이와 영등굿과의 비교를 통해 본 삼여신의 도래신화는 한국신화 중 여성 도래신화의 신화적 상징성을 밝혀주었고, 모계신화의 풍요신적 기능을 복원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계신화가 사라지지 않고, 가락국의 경우는 '희락사 모지사'의 경조행사로 남게 되고, 탐라국의 경우는 '약마희'의 민속의 '떼몰이'로 남아, 제의가 축제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삼여신의 도래는 이웃의 도래신화와 견줄 때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여성신의 내방이 오끼나와 '나라이가나이'처럼 신성한 곳에서 1년에 한 번 내방하여 풍요를 주고 간다는 사유를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1년에 한 번 신의 내방을 맞이하는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가 있음을 밝히고, 이 놀이는 배의 경주와 같은 경조행사로 거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래신화를 경조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축제로 만들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이 놀이(경조행사)를 복원함으로써 민족의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놀이는 북제주군 동북리의 바닷가에서 1년에 한 번 거행하는 대규모의 경조행사로 복원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 놀이의 근원이라 할 3여신의 도래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전설화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성산읍 온평리로 3여신이 도래했다고 한다. 그곳 바닷가에는 3여신이 도래할 때 가져온 송아지와 망아지의 발자국이 남아 있으며, 3신인과 3여신이 함께 목욕했던 혼인지라는 연못과, 첫날밤을 보냈다는 굴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 1년에 한 번 3여신의 도래를 맞이하는 탐라신화 재연의 축제를 벌인다면, 한국축제문화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古事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日本書紀」

「漢書」

가와사키 쓰네유키 외. 「日本文化史」. 혜안. 1994.

김두진. 「韓國 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일조각. 1999.

김영수. 「智異山 聖母祠에 就하야」. 「民俗의 研究(1)」. 정음사. 1985.

김태식.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 설화의 성격」. 「韓國史研究」 102호. 1998.

김태식. 「김해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의 보수과정 검토」. 「韓國史論」 40·41집. 1999.

노성한 역주. 「古事記」. 예전사. 1987.

성은구 역주. 「日本書紀」. 정음사. 1987.

윤철중. 「脫解神話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7.

윤철중. 「회소곡과 사소신모의 織羅」. 「林下 崔珍源教授 停年論叢」. 대한. 1991.

윤철중. 「사소신화의 성립에 관한 고찰」. 「泮橋語文研究」 제 7집. 반교어문화회. 1996.

이강욱. 「수로신화의 서술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 의미」. 「加羅文化」 15집.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1987.

伊藤幹治. 「神話・儀禮の諸相からみた世界觀」. 「沖繩の民族學的研究」. 日本民族學會. 1973.

이상일. 「民族心象의 藝能學」. 시인사. 1984.

이상일. 「祝祭의 精神」. 성균관대출판부. 1998.

이지영. 「韓國 建國神話의 實相과 理解」. 월인. 200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최진원. 「韓國神話考釋」.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4.

허남춘.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월인. 1999.

-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耽羅文化』. 제 2집. 탐라문화연구소. 1983.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현용준.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